발전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첫 파업을 시작하다!!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후정의팀

5월이 채 끝나기 전에 시작된 폭염은 지구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 세계 곳곳에서 가뭄이 들고, 홍수가 나고, 70도가 넘는 폭염이 덮치는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맞선다며 최근 주요 7개국(G7)은 2035년까지 탈석탄을 결의하였다. 한국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중에 석탄과 LNG 발전 비중을 40% 대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계획이 반영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5년)은 2035년까지 전국의 59기 석탄화력발전소 중 30기를 폐쇄할 방침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계획 어디에도 발전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보장은 전무!

'정의로운 전환'이란 유해하거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산업과 공정을 친환경적인 산업과 공정으로 전환하면서,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희생이나 지역사회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는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지난 20년 동안 발전소에서 추진된 민영화와 외주화로 불안정 고용구조가 확대되었다. 고용이 원청 정규직, 자회사 한전KPS, 1차 하청, 2차 하청(KPS하청 포함) 순으로 중층적으로 위계화하면서 현재 발전소 노동자 25,440명 중 정규직 노동자는 13,846명, 비정규직 노동자는 11,594명이다. 그런데 2021년 산업자원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폐지 석탄발전소 활용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는, 2034년까지 폐지되는 30기 발전소 노동자 중 최대 7,935명의 일자리(정규직 2,625+비정규직 5,310)가 없어지리라고 손쉽게 추정한다. 정부의 석탄발전소 폐쇄 계획은 전혀 정의롭지 않다.

▲ HPS발전지부는 5월 28일~29일 이틀 동안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첫 번째 파업' 투쟁에 나섰다. 사진 : 한노보연

발전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첫 파업이 시작하다!

발전HPS(한국플랜트서비스)지부는 원청인 한국남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플랜트서비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다. 9개 지역(신인천, 하동, 영흥, 영월, 신보령, 당진, 부산, 파주, 이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경상정비 등의 업무를 한다.

발전HPS지부는 파업 전인 5월 16일 부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등과 함께 원청인 한국남부발전이 직접 교섭에 나서라는 공문을 보내고,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보장을 촉구하는 720명의 서명지를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한국플랜트서비스 본사 건물에 출입조차 할 수 없었다. 심지어 한국플랜트서비스 사측은 "원청에 가서 따져라", "발전소 폐쇄 이후에도 남고 싶으면 임금 삭감 각오하라"고 폭언을 퍼부었다.

이에 발전HPS지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경쟁입찰 상황에서 고용보장을 합의할 것 △조합원 인사이동 시 당사자와 사전 합의할 것 △매년 10억 원의 복지 기금 운영 △매년 근속 수당 인상 및 근속휴가 지급 △65세 정년보장 등 5개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파업에 나서게 됐다. 노조와의 어떠한 협의나 노동자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맞선 5월 28~29일 이틀 동안의 이 파업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첫 번째 파업'이다. 이른 폭염, 더운 날씨에도 부산에 있는 한국남부발전 본사 앞에 전국 발전HPS지부 조합원들과 기후정의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석탄화력발전소의 정의로운 전환과 공공주도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파업과 연대 투쟁에 놀란 사측은 단체교섭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요구내용 중 일부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번 발전HPS파업은 정부와 자본이 일방적으로 석탄발전소를 멈춰도 노동자의 노동은 멈출 수 없음을 각인시키고, 발전소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차별 없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정의로운 전환임을 알리는 파업이었다. 정부와 원청 발전공기업은 공공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전환과 발전노동자 고용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에 지금 당장 나서라. 일터